

독서모임 제53기 주차별 대상 도서 목록 및 안내 사항

구분	1팀(온라인) 월10-12	5팀 화10-12	9팀 수10-12	10팀 수14-16	13팀 목10-12	14팀 목14-16	17팀 금10-12	19팀 금16-18
1주	설명회							
2주	강상중 『고민하는 힘』 T98	강상중 『살아야 하는 이유』 T104	나쓰메 소세키 『도련님』 T127	정수복 『책임시공』 T320	김영하 『검은 꽃』 T259	도리스 레싱 『다섯째 아이』 2015-7	안드레스 한센 『인스타 브레인』 T283	롤루 밀러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T312
3주	윌리엄 서머싯 몸 『달과 6펜스』 RCL 2018-6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독무대 10-6	헤르만 헤세 『데미안』 T182	매슈 루버리 『읽지 못하는 사람들』 T349	한강 『채식주의자』 T165	헤르만 헤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RCL2018-5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T292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T239
4주	하노 벡 『삶이라는 동물원』 책만세 2018-4	김상욱 『떨림과 울림』 T326	아모스 오즈 『나의 미카엘』 T290	정보라 『저주토끼』 T337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T351	마르쿠스 톨리우스 키케로 『어떻게 나아들 것인가?』 T318	오에 겐자부로 『읽는 인간』 T166	헤르만 헤세 『데미안』 T182
5주	기시미 이치로 『미움받을 용기』 T311	기시미 이치로 『아들러의 심리학을 읽는 밤』 RCL 2017-7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T264	요차이 벤클러 『펭귄과 리바이어던』 T221	최은영 『쇼코의 미소』 T243	마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T29	장영희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T109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T164
6주	강준만 『대중문화의 겉과 속』 T28	박종호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 T211	채만식 『태평천하』 T289	다자이 오사무 『인간실격』 T230	김승옥 『무진기행』 T295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T216	김상욱 『떨림과 울림』 T326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 T269
7주	볼프강 울리히 『모든 것은 소비다』 T177	한병철 『사물의 소멸』 T317	알베르 카뮈 『페스트』 T267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T292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T61	토드 로즈 『집단 착각』 T355	강상중 『살아야 하는 이유』 T104	한병철 『타자의 추방』 T217
8주	이주향 『그림너머 그대에게』 T58	정재승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T73	아베코보 『모래의 여자』 T204	보후밀 흐라발 『너무 시끄러운 고독』 T181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T126	토드 로즈 『집단 착각』 T355	아베코보 『모래의 여자』 T204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T292

독서모임 제53기 주차별 대상 도서 목록 및 안내 사항

구분	팀 안내 사항
1팀	1팀과 5팀은 '세계관 확장 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고, 갇힌 사고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아하는 책만 접하는 독서 습관에서 권태로움을 느끼신다면, 책읽기에 진심이시라면, 1팀 혹은 5팀을 추천합니다.
5팀	1팀과 5팀은 '세계관 확장 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고, 갇힌 사고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아하는 책만 접하는 독서 습관에서 권태로움을 느끼신다면, 책읽기에 진심이시라면, 1팀 혹은 5팀을 추천합니다.
9팀	9팀은 일명 '뉴진스도 읽는 고전문학' 입니다. 고전 문학이라 함은 세기를 넘어 현재까지도 전해질 만큼 훌륭한 소설을 뜻합니다. 이러한 고전을 탐구함으로써 책이 쓰일 당시의 문화와 시대상을 고찰하고 현대인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통찰력의 향상과 삶에 대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평균 300쪽 미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전문학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 또는 다양한 소설 읽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팀입니다.
10팀	10팀에서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소설들, 세계적 석학의 인문학 서적 등을 함께 읽으며 삶을 되돌아볼 예정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은 분들, 우리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모임을 추천합니다.
13팀	13팀은 ‘한국 현대문학 짝퍽’팀입니다. 팀장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한국작가의 책을 모았습니다. 국내 현대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팀을 추천합니다.
14팀	14팀 주제는 『개인과 집단』입니다. 전반부인 『개인』 파트에서는 "나는 가족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형태의 사랑이 중요한가?", "나는 삶에 있어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 등 개인이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 논합니다. 『집단』 파트에서는 혐오와 낙인, 성평등, 정치, 소속감과 딜레마 등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이상향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17팀	17팀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제적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서로간의 소통이 어려워진 사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현대인의 문제적 현실과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모임을 추천합니다.
19팀	19팀의 키워드는 ‘성장’과 ‘다양성’입니다. 책을 매개로 자유로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고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